

#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시사점

**허재철**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장 (jcheo@kiep.go.kr, 044-414-1042)

**김홍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hwkim@kiep.go.kr, 044-414-1278)

**김영선**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044-414-1272)



## 차 례

1. 선거 결과 및 주요국 반응
2. 당선자의 분야별 주요 공약
3.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친미, 반중,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4대 총통으로 당선되어 민진당이 3연임에 성공
  -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민진당 라이칭더 당선자의 ‘민주 vs. 강권주의(極權主義)’ 프레임과 야당의 후보 단일화 실패가 선거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는 현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강경한 독립 지향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샤오메이친 부총통은 미국과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짐.
  - 총통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입법위원(국회의원 격) 선거 결과, 여소야대의 구조가 형성되어 라이칭더 신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차이잉원 정부에 비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민진당(51석)과 국민당(52석) 사이에서 민중당(8석)이 캐스팅 보터로서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 라이칭더 신정부는 ‘평화 4대 지주 행동 방안(和平4大支柱行動方案)’과 ‘혁신과 번영의 대만(創新繁榮的台灣)’ 비전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및 통상·무역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
  - [양안관계] 급진적인 독립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관계 정책을 계승할 것인바, 양안관계의 냉각 상황은 지속 또는 심화할 것으로 보임.
  - [경제통상]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 녹색 성장을 지향하는 한편, 양안 협력보다 국제사회와의 통상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해갈 것으로 전망됨.
  - [대만-미국 관계] 미국은 대만과 안보, 경제 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미중 관계의 관리 필요성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고려하여 대만과의 협력 수위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 ▶ 양안관계가 한층 더 냉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만해협의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대외경제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특히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라이칭더 신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다양한 경제적 강압이 예상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라이칭더 신정부 또한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기회 및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됨.

# 1. 선거 결과 및 주요국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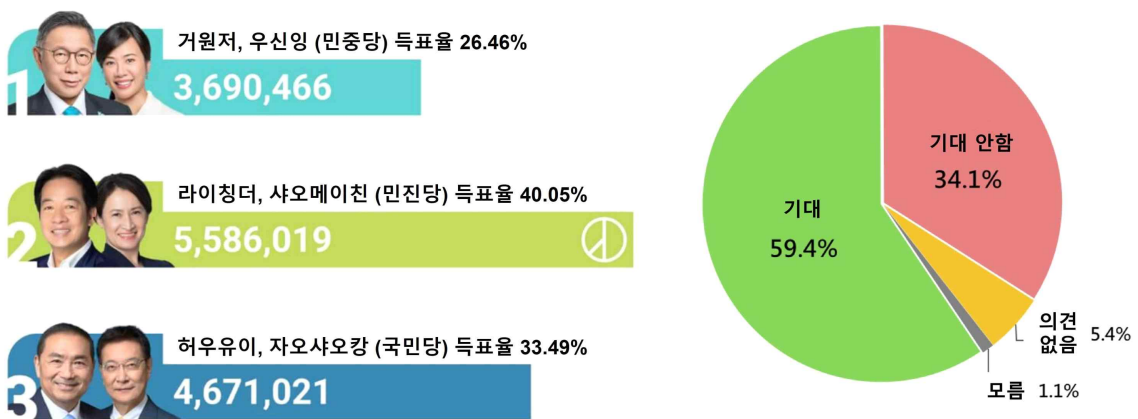
## 가. 총통 선거 결과

### 1) ‘친미, 반중,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4대 총통(대통령 격)으로 당선되어 민진당이 3연임에 성공

■ 2024년 1월 13일(토)에 실시된 총통 선거 결과,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이하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清德) 후보가 558만 6,019표(40.05%),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 이하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가 467만 1,021표(33.49%), 대만민중당(台灣民眾黨, 이하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후보가 369만 466표(26.46%)를 획득함.

- 라이칭더 당선인은 5월 20일에 정식으로 취임하여 2028년까지 총통 임무를 수행할 예정임.
  - 대만의 총통 임기는 4년이지만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어 최대 8년까지 집권 가능
- 대만은 1996년 총통 직선제 실시 이후, 최초 4년을 제외하고는 8년을 주기로 국민당과 민진당이 번갈아가며 집권해 왔으나, 이번에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진당이 세 차례(12년) 연속으로 집권하게 됨.
  - 1996년 국민당 리덩후이 → 2000년, 2004년 민진당 천수이벤 → 2008년, 2012년 국민당 마잉주 → 2016년, 2020년 민진당 차이잉원 → 2024년 민진당 라이칭더 당선

그림 1.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左)와 선거 전 실시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 여론(右)



주: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右)는 대만민의를기금회(台灣民意基金會)가 2023년 12월 29일에 발표한 자료임.  
 자료: 中央通訊社, 「賴清德勝選、國會三黨不過半 2024選舉結果一次看【圖表】」, <https://www.cna.com.tw/news/aip/202401135011.aspx>(검색일: 2024. 1. 14); 台灣民意基金會(2023. 12. 29), 「選民是否期待第四次政黨輪替執政?」(검색일: 2024. 1. 12)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편집.

-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민진당 라이칭더 당선자의 ‘민주 vs. 강권주의(極權主義)’ 프레임과 야당의 후보 단일화 실패가 선거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중 시위(일명 반송환법 시위)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계기로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급격히 상승한 가운데, 민진당 라이칭더 당선자는 이번 선거를 ‘민주 vs. 강권주의’의 구도로 만들며 반중 정서를 배경으로 지지층을 확대함.
  - 2019년 홍콩의 반송환법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홍콩) 정부의 강력 진압과 이후 홍콩 사회에 대한 중국 본토의 개입 강화,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강권적 봉쇄와 언론 통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보며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상승하였음.
  - 라이칭더 후보는 ‘강권주의 체제인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주권과 민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민진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진정한 평화는 협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력(힘)이 뒷받침되어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에 유화적인 야당을 비판
- 선거 막판에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현재의 차이잉원 정부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그림 1의 右), 야당(국민당, 민중당)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표심이 분산되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2) 총통 및 부총통 당선자

-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는 현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강경한 독립 지향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샤오메이친 부총통은 미국과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짐.

표 1. 대만 14대 총통 및 부총통 당선자의 주요 이력

직위	이름	사진	학력 및 주요 경력
총통 당선자	라이칭더 (賴清德) 1959년생		- 국립대만대 재할학과 학사 졸업(1982) - 국립성공(成功)대학 의학과 진학 후 의사면허 취득(1991) - 하버드대학 공공보건학 석사 졸업(2003) - 現 부총통(차이잉원 정부) - 現 민진당 주석 - 前 행정원 원장(국무총리 격, 2017~2019) - 前 타이난시 시장 및 입법위원(1999~2017) - 前 성공대학 의사
부총통 당선자	샤오메이친 (蕭美琴) 1971년생		- 미국 오벌린 칼리지(Oberlin College) 동아시아학 학사 졸업(1993) - 컬럼비아대 정치학 석사 졸업(1995) - 前 중화민국 주(駐)미국 대표(2020~23) - 前 비례 및 지역구 입법위원(2012~20) - 일본 고베시 출생, 모친 미국인 - 2002년 미국 국적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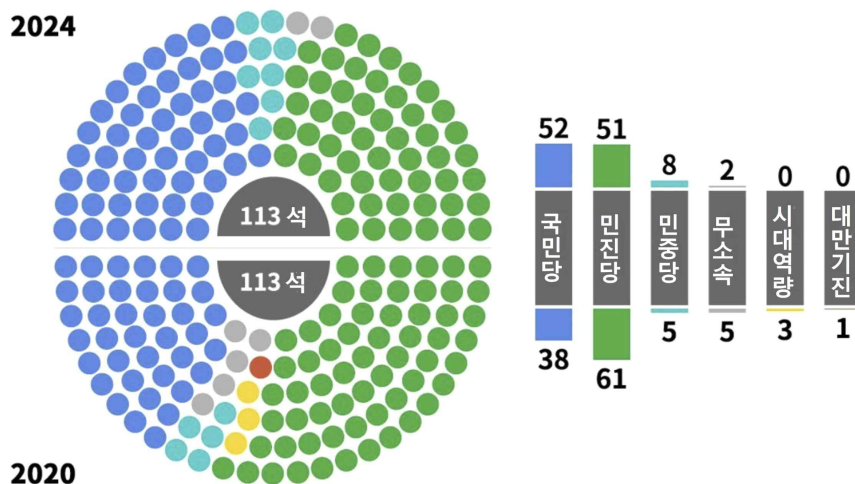
자료: 각종 인터넷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는 과거 자신을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 실무자(我是一个主张台湾独立的政治工作者)”라고 표현한 적이 있으나,<sup>1)</sup> 선거 과정에서는 전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상 유지’를 줄곧 강조함.
- 샤오메이친 부총통 당선자는 미국 주재 민진당 사무실에서의 근무 경험과 입법위원 당시 외교·통상 분야에서의 의정 활동,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미 대만 대표처(대사관 격)의 대표를 역임하는 등 대미 관계 및 대외관계와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함.
  - 일본 고베시에서 태어난 샤오메이친 부총통 당선자는 모친이 미국인이며, 고등학교와 대학 학부, 석사 과정을 미국에서 마쳤으나 공무원 수행을 위해 2002년 미국 국적을 포기함.

## 나. 입법위원 선거 결과

- 총통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입법위원(국회의원 격)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국민당이 제1당의 자리를 탈환하고 민중당이 약진함.
- 총 의석수 113석 중에서 국민당이 52석, 민진당이 51석, 민중당이 8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하여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인 57석에 이르지 못함.
- 국민당은 38석에서 52석으로 늘어났고(14석↑), 민진당은 61석에서 51석으로 줄었으며(10석↓), 민중당은 5석에서 8석으로 증가함(3석↑).

그림 2. 2024년 대만 입법위원 선거 결과



자료: 聯合報, 「國會政黨板塊挪移」, <https://udn.com/vote2024/infographics>(검색일: 2024. 1. 14)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편집.

1) 網易, 「賴清德自稱的“務實台獨工作者”, 到底是什麼意思?」, <https://www.163.com/dy/article/IN872SRL05149M1D.html>(검색일: 2024. 1. 11).

- 입법원(국회 격)에서 여소야대의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민중당이 캐스팅보트를 가지게 되어 존재감이 상승함.
  - 2016년 차이잉원 집권 이후 민진당이 입법원에서도 줄곧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하며 여소야대 구조가 형성됨.
  - 국민당은 선전하여 비록 의석수가 증가했지만, 기대했던 과반수 달성에는 실패함.
  - 민중당은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가 8석으로 증가함에 따라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존재감이 상승함.

## 다. 주요국 반응

- [중국]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이 결정되자 중국 정부는 짧은 논평을 통해 “선거 이후 양안관계의 구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대만 독립 반대’에 대한 입장을 강조함.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나타냄.<sup>2)</sup>
  - 국무원 대만 판공실 대변인은 대만의 총통·입법위원 선거 결과는 민진당이 대만 내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이번 선거 결과가 양안관계의 기본 구도와 발전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며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함.<sup>3)</sup>
  - 또한 선거 결과와 관련한 미 국무부의 성명 발표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사이의 3개 연합성명을 엄중히 위반하고 있고, 대만의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라며 강한 불만과 견결한 반대 입장을 나타냄.<sup>4)</sup>
- [미국] 라이칭더의 총통 당선을 축하하며 향후 미국-대만 간 비공식 관계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향후 라이칭더 신정부 및 대만의 각 정당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고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계속해서 비공식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sup>5)</sup>
    - 미국은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이견에 대한 평화적인 해법 모색, 강압과 압력으로부터 자유를 약속한다고 언급
  -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답변함.<sup>6)</sup>

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4. 1. 13), 「外交部发言人就台湾选举答记者问」, [https://www.mfa.gov.cn/web/fyrbt\\_673021/202401/t20240113\\_11223310.shtml](https://www.mfa.gov.cn/web/fyrbt_673021/202401/t20240113_11223310.shtml)(검색일: 2024. 1. 14).

3) 国务院台湾事务办公室(2024. 1. 13), 「国务院台办发言人评论台湾地区选举结果」, [http://www.gwytb.gov.cn/xwdt/xwfb/wyly/202401/t20240113\\_12593548.htm](http://www.gwytb.gov.cn/xwdt/xwfb/wyly/202401/t20240113_12593548.htm)(검색일: 2024. 1. 14).

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外交部发言人就美国国务院关于中国台湾地区选举的声明发表谈话」,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401/t20240114\\_11223447.shtml](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401/t20240114_11223447.shtml)(검색일: 2024. 1. 14).

5) U.S. Department of State(2024. 1. 13), “On Taiwan’s Election,” <https://www.state.gov/on-taiwans-election/>(검색일: 2024. 1. 14).

6) Reuters, “U.S. does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 Biden says,” <https://www.reuters.com/world/biden-us-does-not-support>

- 한편 1월 15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차관보와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이 라이칭더 당선자를 예방하고 당선을 축하함.<sup>7)</sup>

■ [기대] 일본과 유럽, 우리 정부도 축하 인사와 함께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힘.

- 일본은 외무대신의 담화를 통해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인사와 함께, “대만은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하면서, 비정부 간의 실무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힘.<sup>8)</sup>
- 유럽연합(EU)은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민주적 행사에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EU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지역 및 세계의 안보, 번영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입장을 밝힘. 또한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현상을 바꾸려는 어떤 일방적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언급함.<sup>9)</sup>
-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양안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대만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힘.<sup>10)</sup>

## 2. 당선자의 분야별 주요 공약

### 가. 외교, 안보 분야

■ [대외 정책] 기본적으로 현 차이잉원 정부의 노선을 계승하면서, ‘평화 4대 지주 행동 방안(和平4大支柱行動方案)’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중국에 맞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만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함.

- ‘평화 4대 지주 행동 방안(和平4大支柱行動方案)’이란 △자주국방 강화, △경제안보 강화, △국제사회의 민주 진영과 연대 심화, 그리고 △존엄과 대등을 전제로 중국과의 대화 및 협력을 진행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임.<sup>11)</sup>
-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민주 진영과 함께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보다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대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t-taiwan-independence-2024-01-13/(검색일: 2024. 1. 13).

7) 매일경제, 「美대표단 만난 라이칭더 당선인…“계속 대만 지원해달라”」, <https://www.mk.co.kr/news/world/10921318> (검색일: 2024. 1. 15).

8) 外務省, 「台湾総統選挙の結果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 [https://www.mofa.go.jp/mofaj/press/danwa/pageit\\_000001\\_00192.html](https://www.mofa.go.jp/mofaj/press/danwa/pageit_000001_00192.html)(검색일: 2024. 1. 14).

9) EEAS, Taiwan: Statement by the Spokesperson on the elections, [https://www.eeas.europa.eu/eeas/taiwan-statement-spokesperson-elections-0\\_en](https://www.eeas.europa.eu/eeas/taiwan-statement-spokesperson-elections-0_en)(검색일: 2024. 1. 14).

10) 뉴시스, 「정부,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양안관계 평화적 발전 기대”」,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14\\_0002591344&cid=10304&pid=103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14_0002591344&cid=10304&pid=10300)(검색일: 2024. 1. 14).

11) 中央通訊社, 「賴清德投書華爾街日報 提4大支柱致力維護兩岸和平【全文】」, <https://www.cna.com.tw/news/aip/202307050017.aspx> (검색일: 2024. 1. 11).

■ [양안관계]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보다 강조함.

- 중국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는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전쟁에 대한 불안을 조성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평화와 안정, 현상 유지를 강조함.
  - 차이잉원 총통은 ‘평화, 대등, 민주, 대화’의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양안관계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양안관계 정책은 ‘중국에 대항해서 대만을 보호한다’는 ‘항중보대(抗中保台)’로 불림.
  - 라이칭더 당선자는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정책을 계승하는 바탕 위에, 양안 사이의 전쟁 불안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항중보대(抗中保台)’를 ‘화평보대(和平保台)’, 즉 양안 사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여 대만을 보호하겠다고 온건한 이미지를 강조
- 중국과의 통일 또는 독립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라이칭더 당선자는 ‘현상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중화민국 대만은 이미 주권 독립의 국가로서 별도로 독립을 선포할 필요가 없다”<sup>12)</sup>는 의견을 표명함.
  - 현재 대만 사회 내부에서 급진적인 통일과 독립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도 독립도 아닌 ‘현상 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향하는 정치적 비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을 의미하는 ‘92 공식(共識, Consensus)’<sup>13)</sup>에 대해서도 차이잉원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중국 대륙을 중화민국의 영토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 중화민국 헌법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국방] ‘국방이 강해야 평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방력 강화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방 개혁 및 ‘대학 3+1’ 제도를 지속 추진

- “‘강권주의 국가가 감히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민주 국가와의 연대와 함께 국방력이 강해야 한다”고 강조함.
- 차이잉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방 개혁을 가속화하고, 효율적이고 기동성 있는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며, 부대훈련과 민방위, 정보교환 등 방면에서 동맹국과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렇게 해야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지불할 비용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군사충돌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주장함.<sup>14)</sup>
- 차이잉원 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병역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제도 변경을 계승하며(2024년 1월부터 실시),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의 경우 3년 동안 대학 학업을 모두 마치고 1년 동안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여 4년 안에 학업과 병역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대학 3+1’ 제도를 지속 실시하고자 함.

12) 工商時報, 國際記者會/賴清德: 台灣不需另行宣布獨立 他當選中國可檢討對台政策, <https://www.ctee.com.tw/news/20240109700937-430104>(검색일: 2024. 1. 11).

13) ‘92 공식(共識, Consensus)’은 1992년에 중국과 대만의 반관영기구인 중국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해협교류기금회 사이에서 합의된 ‘양안은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인식을 나타내는데, 다만 ‘하나의 중국’에서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는지 아니면 중화민국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합의하지 않았음. 양안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전제를 만족하면서도 양측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다만 국민당은 이러한 ‘92 공식’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민진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14) The Wall Street Journal, “My Plan to Preserve Peace in the Taiwan Strait,” <https://www.wsj.com/articles/my-plan-to-preserve-peace-between-china-and-taiwan-candidate-election-race-war-7046ee00?page=1>(검색일: 2024. 1. 12).



■ [경제안보] ‘경제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인식하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자 함.

- 대만이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강국이 되었지만, 현재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로 인해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할 수 있는 취약성이 생겼다고 하면서, 무역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무역협정 확대와 안전한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함.<sup>15)</sup>

## 나. 경제통상 분야

■ 라이칭더 당선자는 경제통상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혁신과 번영의 대만(創新繁榮的台灣)’을 제시하고, 재임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 3.5%를 제시함.<sup>16)</sup>

- 당선자는 선거 기간에 ① 민주와 평화, ② 혁신과 번영, ③ 정의와 지속가능성을 국정 목표이자 원칙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국정과제를 담은 ‘국가 희망 프로젝트(國家希望工程)’를 공개함.
- 산업·과학기술·금융 분야의 혁신과 함께 혁신적 창업에 기반한 경제발전 모델을 구축하여, △혁신 성장, △포용적 성장, △녹색 성장을 이루고자 함.
-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 구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구체적으로 ‘6대 핵심전략산업(核心戰略產業)’과 ‘5대 신뢰산업(信賴產業)’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및 복원력(resilience)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sup>17)</sup>
  - 라이칭더 당선자는 현 차이잉원 정부의 ‘6대 핵심전략산업’에 △반도체, △인공지능, △방위산업, △보안제어, △통신 등 ‘5대 신뢰산업’을 추가로 제시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전 세계의 지정학적 변화 및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자 함.
- 라이칭더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차이잉원 및 마잉주 전 총통의 집권 시기에 달성한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0.1%p, 0.5%p 높은 수준임.

■ 산업·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국가 차원의 반도체 전략 및 AI 기술 산업화를 추진하고, 기술혁신 플랫폼을 건설하여 대만 내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임.<sup>18)</sup>

15) 위의 자료.

16) 2024 Team Taiwan(2023. 10. 3), 「【政見願景】國家希望工程：創新經濟，智慧國家」, <https://taiwan2024.tw/policies/4>: “DPP’s Lai aims for average annual GDP growth of 3.5% if elected”(2023. 11. 30), Focus Taiwan, <https://focustaiwan.tw/politics/202311300020>(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1. 11).

17) 2020년 차이잉원 총통은 6대 핵심전략산업으로 △ 정보·디지털, △ 정보보안, △ 정밀 헬스케어, △ 국방·우주, △ 민생·전략비축물자, △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제시하고 발전 정책을 추진해 옴. National Development Council, Program for Promoting Six Core Strategic Industries, [https://www.ndc.gov.tw/en/Content\\_List.aspx?n=2D827BFE7E3598BE](https://www.ndc.gov.tw/en/Content_List.aspx?n=2D827BFE7E3598BE); 「提出「四大支柱」後 再拋「五大信賴產業」 賴清德：因應地緣政治變化，經濟產業實力也是關鍵」(2023. 8. 25), 今周刊, <https://www.businesstoday.com.tw/article/category/183027/post/202308250035>(검색일: 2024. 1. 11).

18) 2024 Team Taiwan(2023. 10. 3), 「【政見願景】國家希望工程：創新經濟，智慧國家」, <https://taiwan2024.tw/policies/4>(검색일: 2024. 1. 11).

- 라이칭더 당선자는 '5대 신퇴산업' 중에서도 반도체와 AI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함.<sup>19)</sup>
- 국제적인 반도체 설계·제조 전략기지를 구축하여 반도체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다른 과학 기술 분야 및 전통산업의 발전을 이끌 계획임.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AI 기술의 산업화 및 전통산업에 대한 응용을 추진하며, 대만을 인태지역의 AI 기술혁신 허브로 구축하고자 함.<sup>20)</sup>
  - 라이칭더 정부는 AI와 관련하여, 차이잉원 정부에서 추진해 온 2018년 「대만 AI 행동계획 2018~21년 (臺灣AI行動計畫)」, 2023년 「대만 AI 행동계획 2.0(臺灣AI行動計畫2.0)」<sup>21)</sup>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현 정부와 같이 현상 유지를 기조로 하되, 대등한 협력관계와 민주적 절차를 강조함.<sup>22)</sup>

- 라이칭더 당선자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면서, 현 차이잉원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상을 유지하는 기조로 양안 경제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함.
  - 대만 경제부에 따르면, 대만 전체 수출에서 ECFA 조기수확프로그램의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9월 시점에서 3.6% 수준임.<sup>23)</sup>
- ECFA 후속 협상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향후 ECFA의 지속 여부는 중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함.

글상자 1. 대만-중국 ECFA 추진 상황

- 2010년 1월 협상 개시 → 2010년 6월 협정 체결 → 2010년 9월 정식 발효 → 2011년 1월 조기수확프로그램 (EHP)\* 발효 → 2012년 투자보장협정 및 세관협력협정 체결 → 2013년 1월 조기수확프로그램 품목 전면 무관세 적용
- \* EHP(Early Harvest Program) 시행으로 ① 상품 분야 중 중국 539개, 대만 267개 품목의 관세 인하, ② 서비스 분야 중 중국 11개, 대만 9개 서비스 진입 완화
- 상품무역 후속협정: 2011년 1차 협상 개시, 2015년까지 12차 협상 진행한 뒤 중단
- 서비스무역 후속협정: 2011년 1차 협상 개시, 2013년 정식 서명 이후 대만 입법원 비준 과정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혀 미발효

자료: JETRO(2020. 1. 27), 「10年を迎えるECFAの行方(中国、台湾)」,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20/edda4a011fff856.html>(검색일: 2024. 1. 11).

19) "Taiwan's Presidential Frontrunner Faces a Balancing Act With China"(2023. 11. 20), TIME, <https://time.com/6336441/taiwan-presidential-election-william-lai-profile/>(검색일: 2024. 1. 11).

20)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윤리 기준 실현과 수용성 향상이 강조되면서 안전성, 설명가능성, 투명성, 견고성, 공정성 등 요소를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관계부처 합동(2021. 5. 13),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안)」.

21) 「대만AI행동계획2.0」의 중점 정책사업은 △ 인재 육성, △ R&D 및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 법규 마련, △ 국제협력 강화, △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AI 기술 활용 등임. 行政院(2023), 「臺灣AI行動計畫 2.0(2023-2026 年)」.

22) 「【總統10問】賴清德專訪: ECFA只占出口3%, 台灣應走進世界; 民進黨做錯地方應反省, 取得年輕人信任(2023. 12. 22), 報導者, <https://www.twreporter.org/a/2024-election-presidential-candidates-interview-lai-ching-te>

23) 經濟部(2023. 10. 22), 「侯友宜稱不敢斷ECFA 貿易署: 維持現狀本就是一貫主張 兩岸經貿互惠 翻轉依賴是事實」, [https://www.moea.gov.tw/MNS/populace/news/News.aspx?kind=1&menu\\_id=40&news\\_id=112637](https://www.moea.gov.tw/MNS/populace/news/News.aspx?kind=1&menu_id=40&news_id=112637)(검색일: 2024. 1. 11).

■ 차이잉원 정부의 신남향 정책과 국제 통상협력 추진 방침을 계승하면서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할 계획임.<sup>24)</sup>

- 신정부는 차이잉원 정부의 신남향 정책을 계승하여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의 지역에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고 대만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 대만은 2023년 6월 미국과의 1차 무역협정(United States-Taiwan Initiative on 21st-Century Trade First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체결 이후 후속 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이외 일본, 유럽 등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 양자 또는 다자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함.
  - 대만과 미국은 후속 협상에서 환경보호, 노동, 농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대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농산물 수출 확대임.<sup>25)</sup>
  - 2023년 대만은 미국 이외 6개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처음으로 잠수함을 단독 건조하였으며,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안보 측면에서 유사 입장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sup>26)</sup>

## 다. 사회 및 기타 분야

■ [부동산] 라이칭더 당선자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정상화, 청년 주거 안정화, 주택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로 내세움.

- 대만의 집값을 나타내는 '신이 부동산지수(중위가격 기준)'는 2023년 3/4분기 149.82까지 치솟아 2020년 1/4분기 108.03에 비해 약 39% 급등했으며, 대만의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20이 넘을 정도로 주택가격 상승 및 청년들의 주택 구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sup>27)</sup>
- 라이칭더 당선자는 주거정의(居住正義) 추진을 내세워 △주택비축세2.0(囤房稅2.0) 시행 △청년정착대출 최적화, △사회주택 활성화를 강조함.<sup>28)</sup>
  - 주택비축세2.0을 통해 주택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악의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함.<sup>29)</sup>
  - '청년정착대출'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청년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향후 8개년 계획을 세워 신규 주택 13만 호를 포함하여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임.

24) 과거 국민당의 리덩후이 총통이 대중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남향 정책을 제시하였고, 2016년 차이잉원 전 총통이 아세안을 포함한 18개 국과의 교역 및 공급망 다변화, 관광·문화·인적교류 확대를 목표로 신남향 정책을 제안하여 추진해 옴. 이왕휘, 박성빈(2023. 9. 21), 「대만의 경제안보: 신남향정책과 반도체 산업」,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25) 김영선(2023. 6. 22), 「미국-대만 무역협정 체결 의미와 전망」, KIEP 지역연구 동향세미나.

26) "Taiwan to unveil first locally built sub; US, half-dozen countries help with tech"(2023. 9. 27), Breaking Defense, <https://breakingdefense.com/2023/09/taiwan-to-unveil-first-locally-built-sub-us-half-dozen-countries-help-with-tech/>

27) 매일경제(2023. 12. 12), 「대만총선...청년 표심은 정치·안보보다 '떡고사니즘」; 동아일보(2024. 1. 9), 「"대만 총통선거 박빙 싸움... 중, 힘으로 새 정부 길들이기 나설 듯"」.

28) 挺台灣(2023. 12. 26), 「賴清德第一輪發言逐字稿」, <https://taiwan2024.tw/news/623>(검색일: 2024. 1. 13).

29) 2023년 12월 대만 입법원에서 통과된 '주택비축세2.0(囤房稅2.0)' 개정 초안이 2024년 7월에 시행되고 2025년부터 관련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예고됨. 향후 주택세는 대만의 모든 가구에 부과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非自住) 주택에 대한 법정세율은 현행의 1.5~3.6%에서 2.0~4.8%로 인상될 예정임. 中國評論通訊社(2023. 12. 19), 「台2025年開徵囤房稅 稅率最高4.8%」, <http://hk.crntt.com/crn-webapp/to uch/detail.jsp?docid=106837820>; 中國評論通訊社(2023. 9. 21), 「台再打炒房! 囤房稅最高稅率調至4.8%」, <http://hk.crntt.com/doc/10677/0/1/106770157.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1. 14)

■ [실업률]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지원 등 실업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5년 내 2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함.<sup>30)</sup>
- 청년 고용 상황 개선, 청년의 직업훈련 참여 지원, 청년 혁신 및 창업 지원, 청년의 경력 개발 지원 등 청년의 사회 진출과 적응을 돕는 한편,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계획에 대해 밝힘.<sup>31)</sup>
  - 특히 18~22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정책 백서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청취하여 학교 교육, 취업, 창업, 주거 등 부처 간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할 예정

■ [노동 정책] 노동 정책의 골자는 산업의 다각적인 발전 촉진, 다양한 취업 기회 창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적극 투자, 노동자의 권익 보장 강화임.<sup>32)</sup>

- 연금 및 보험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 및 노후생활 보장, 노동보험기금의 존속을 위해 공익예산 지속 투입, 노동보험에 대한 정부의 최종 지급 책임 약속을 강조함.
- 노동 임금 인상 및 노동 기본임금 법안 지속 활용, 최저임금법 시행, 근로조건 개선 등과 같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공약으로 제시함.
- 민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노동권을 증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다양성을 존중하는 직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성평등이 보장되는 근로환경 조성,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 확대에 방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시행할 계획임.

■ [환경 및 에너지 정책] 차이잉원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여 넷제로(Net Zero) · 탈원전 ·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 차이잉원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여 비핵화, 석탄 감축, 천연가스 이용률 증대, 녹색 개발을 기조로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sup>33)34)</sup>
- ‘2050 넷제로 전환’을 위한 5대 전략으로 ① 스마트·공유의 그린에너지 전략 구축, ② 디지털과 녹색산업의 융합 추진, ③ 지속 가능한 녹색 생활 구현, ④ 넷제로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변화를 내세움.<sup>35)</sup>
- 라이칭더 당선자는 원자력 발전은 핵폐기물과 안전 문제 때문에 완전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지열 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개발 위주로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다원화를 추진하고자 함.<sup>36)</sup>

30) Business Weekly(2023. 12. 18), 「2024總統大選候選人「經濟/產業」政見總整理, 不能只靠護國神山, 誰推得動產業轉型?」, <https://www.businessweekly.com.tw/focus/blog/3013540>(검색일: 2024. 1. 13).

31) 挺台灣(2023. 9. 12), 「【政見願景】國家希望工程: 0-22歲投資未來世代」, <https://taiwan2024.tw/policies/2>(검색일: 2024. 1. 14).

32) 挺台灣(2023. 12. 5), 「【政見願景】國家希望工程: 尊嚴勞動, 友善職場」, <https://taiwan2024.tw/policies/13>; 挺台灣(2023. 12. 28), 「12.28【第三場政見發表會】賴清德第二輪發言逐字稿」, <https://taiwan2024.tw/news/664>; 挺台灣(2023. 11. 29), 「賴清德出席「工」辦政見發表會 打造尊嚴勞動的友善職場」, <https://taiwan2024.tw/news/455>(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1. 13).

33) Yahoo新聞(2023. 12. 21), 「2024總統大選政見一次看| 侯友宜, 柯文哲, 賴清德 10大主題政策精華版總整理」(검색일: 2024. 1. 13).

34) 대만 행정원은 2016년 9월 「2025년 비핵국가를 목표로 신에너지정책 추진(為邁向2025非核家園目標推動新能源政策)」을 발표함. 핵심내용은 △비(非)원전국가, △안정적 전력 공급, △오염 개선을 통한 지속적 경제 발전과 민생용 전력의 안정적 공급 확보임. 이준서(2019), 「에너지 전환 로드맵 실현을 위한 지역산업 관련 분야 법적 정비방안 연구」, p. 91, 한국법제연구원.

35) 挺台灣(2023. 10. 19), 「【政見願景】國家希望工程: 淨零轉型, 永續台灣」, <https://taiwan2024.tw/policies/6>(검색일: 2024. 1. 13).

### 3. 전망 및 시사점

#### 가. 전망

■ [내부 정치] 비록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입법원에서 여소야대의 구조가 형성되어, 라이칭더 신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차이잉원 정부(여당이 과반수 차지)에 비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1996년 총통 직선제 실시 이후, 2000년 천수이볜 당선자를 제외하고 총통 당선자는 모두 50% 이상의 득표율을 달성했으나, 이번 라이칭더 당선자는 40%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함.
- 한편 입법원에서 국민당이 52석으로 제1당이 되고, 민중당이 8석을 차지하게 되어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만큼, 정책 추진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국민당과 민중당 모두 중국과의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라이칭더 신정부가 독단적으로 반중국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양안관계] 급진적인 독립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관계 정책을 계승할 것이므로 양안관계의 냉각은 지속될 전망이다.

- △여소야대의 정국,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공식 입장, △통일도 독립도 아닌 현상 유지를 바라는 압도적인 여론 등에 따라 라이칭더 신정부가 급진적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일국양제의 비현실성, 중국의 강압에 대한 저항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미국은 물론, 야당과 시민으로부터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탈중국(去中國化)’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92 공식’은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반발하는 중국과의 대화와 협상은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대(對)대만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라이칭더 당선자가 양안 교류에 대한 의지보다 ‘두 주권 국가’ 간의 대등한 협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라이칭더 정부와 어떠한 대화와 협상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sup>37)</sup>
  - 중국은 대만의 선거 기간인 2023년 12월 21일에 12개 대만산 석유화학 품목의 무관세 적용을 취소하는 등 무역 제재를 취한 바 있음.<sup>38)</sup>
  - 선거 직후인 1월 15일, 남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할 것임을 발표했는데, 이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sup>39)</sup>

36) The Reporter(2023. 12. 22), 「【總統10問】賴清德專訪：ECFA只占出口3%，台灣應走進世界；民進黨做錯地方應反省，取得年輕人信任」, <https://www.twreporter.org/a/2024-election-presidential-candidates-interview-lai-ching-te>(검색일: 2024. 1. 11).

37) 성균중국연구소(2024. 1. 15), 「2024년 대만 선거 특별리포트: 양안 거대담론의 한계와 제3정치세력의 약진」, p. 5.

38) 中国财政部(2023. 12. 21),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中止《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部分产品关税减让的公告」, [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312/t20231221\\_3923283.htm](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312/t20231221_3923283.htm).

39) 뉴시스 「中 외교부 “나우루 정부의 대만 단교 환영」,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15\\_0002592933&cID=10101&pID=101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15_0002592933&cID=10101&pID=10100)(검색일: 2024. 1. 15).

- [경제통상] 전반적으로 현 차이잉원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안 협력보다 국제사회와의 통상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 반도체와 AI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경제에서 대만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대만 내 분쟁 발생 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고자 함.
  - 신남향 정책 대상국과 유사 입장국을 중심으로 대만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자 유치를 적극 추진해 글로벌 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대만은 국제 경제·통상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편으로 국제 통상협정 가입 및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나, 중국이 이를 강력하게 견제할 것으로 보여 국제 경제 무대에서 양안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음.<sup>40)</sup>
  
- [대만-미국 관계] 미국은 대만과 안보, 경제를 중심으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미중 관계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를 고려하여 협력의 수위를 조정해 나갈 전망이다.
  - 대만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 견제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바 향후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라이칭더 신정부는 지역 강국이자 전통적 우방인 일본은 물론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에도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sup>41)</sup>
  - 특히 라이칭더 당선인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국방,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2023년 체결한 ‘대만-미국 1차 무역협정’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안 속에서 라이칭더 당선자의 독립 성향이 야기할 수 있는 대만해협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은 라이칭더 신정부와의 협력 수준을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였는데, 이는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라이칭더 신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만해협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반응으로 해석됨.

## 나. 시사점

- 양안관계의 악화가 한중관계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라이칭더 신정부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양자 및 소다자 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가 의도치 않게 연루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압박에 대해서 라이칭더 당선자는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체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

40) 中国政府网(2021. 9. 29), 「国台办:反对台湾地区参与任何有官方性质的自贸安排」, [https://www.gov.cn/xinwen/2021-09/29/content\\_5640044.htm](https://www.gov.cn/xinwen/2021-09/29/content_5640044.htm)(검색일: 2024. 1. 13).

41) 조선일보, 「라이칭더 “한국과 新공급망 만들고 싶다” 허우유이 “신남방 정책 대신 한-일과 협력”」,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4/01/13/YOPEBBW4NRFO7HLNSCU67MCWT4/>(검색일: 2024. 1. 14).

어, 각종 국제무대에서 대만의 참여를 둘러싸고 우리 외교가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음(예: 세계보건총회(WH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등).

- 라이칭더 당선자가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 향후 대만과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함.
  - 라이칭더 당선자는 투표 전날인 1월 12일(금) 기자회견에서 “당선되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新)공급망 안보 대화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음.<sup>42)</sup>
  - 대만과의 협력 확대 및 강화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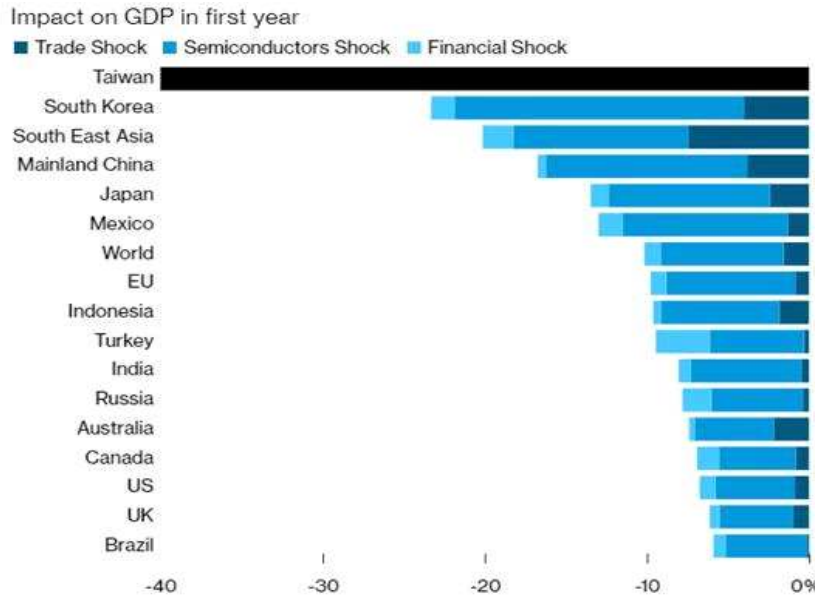
■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모색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고 독립을 지향하는 라이칭더 신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대만해협에서 다양한 수준의 무력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라이칭더 정부 또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대만해협 내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 한편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은 대만을 중국 견제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 중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며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액은 코로나19와 러-우 전쟁보다 훨씬 많은, 글로벌 GDP의 10%에 해당하는 1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가(지역)별로는 당사자인 대만에 이어 인접국인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은 경제적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함.<sup>43)</sup>
  -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평화와 안정을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지방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층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다만 이러한 노력이 내정 간섭이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42) 조선일보, 「라이칭더 “한국과 新공급망 만들고 싶다” 허우유이 “신남방 정책 대신 한-일과 협력”」,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4/01/13/YOPEBBW4NRFO7HLNSCU67MCWT4/>(검색일: 2024. 1. 13).

43) Bloomberg, “Xi, Biden and the \$10 Trillion Cost of War Over Taiwan,”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24-01-09/if-china-invades-taiwan-it-would-cost-world-economy-10-trillion>(검색일: 2024. 1. 13).

그림 3. 대만해협의 군사적 충돌이 각국 경제에 미칠 영향



Source: Bloomberg Economics  
Note: Estimate for Taiwan based on recent conflicts, estimate for rest of world based on semiconductor, trade, and financial shock models

자료: Bloomberg, "Xi, Biden and the \$10 Trillion Cost of War Over Taiwa,"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24-01-09/if-china-invades-taiwan-it-would-cost-world-economy-10-trillion>(검색일: 2024. 1. 13).

■ 예상되는 라이칭더 신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기회 및 도전 요인을 파악하여 우리의 대외경제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라이칭더 신정부는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며 △공급망 및 수출입 다변화, △반도체와 AI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우방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극복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차이잉원 정부에서 추진해 온 ‘신남향정책 추진계획’을 계승하여 동남아, 인도 등 신흥 시장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이 시장을 둘러싼 한국과 대만 간 경쟁이 예상됨.
  - 라이칭더 당선자는 차이잉원 정부에서 추진한 6대 핵심 전략산업(정보·디지털, 정보보안, 정밀 헬스케어, 국방·우주, 민생·전략비축물자,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산업)과 ‘5대 신뢰산업(반도체, 인공지능, 방위, 보안제어, 통신산업)’을 지속 육성할 것이라고 밝혀, 이 분야에서 한-대만 간 협력 기회 및 경쟁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KIEP**